



4월 12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에 큰비를 내릴 것이다."



"똑딱똑딱!" 노아와 세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비가 내릴 것ियो! 모두 이 방주에 타야 살 수 있어요!" 노아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들도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문을 "쿵!" 닫으셨어요.



후드득 후드득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방주로 뛰어왔어요.
"꽁! 꽁! 꽁!" "노아,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십 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물이 점점 불어나 높은 산까지 잠겼고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둥둥 떠 다녔어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물을 물리하게 하셨어요. "쿵!"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산이 보이고 땅이 드러났어요. 드디어 방주 문이 열리고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일곱 색깔 무지개를 주셨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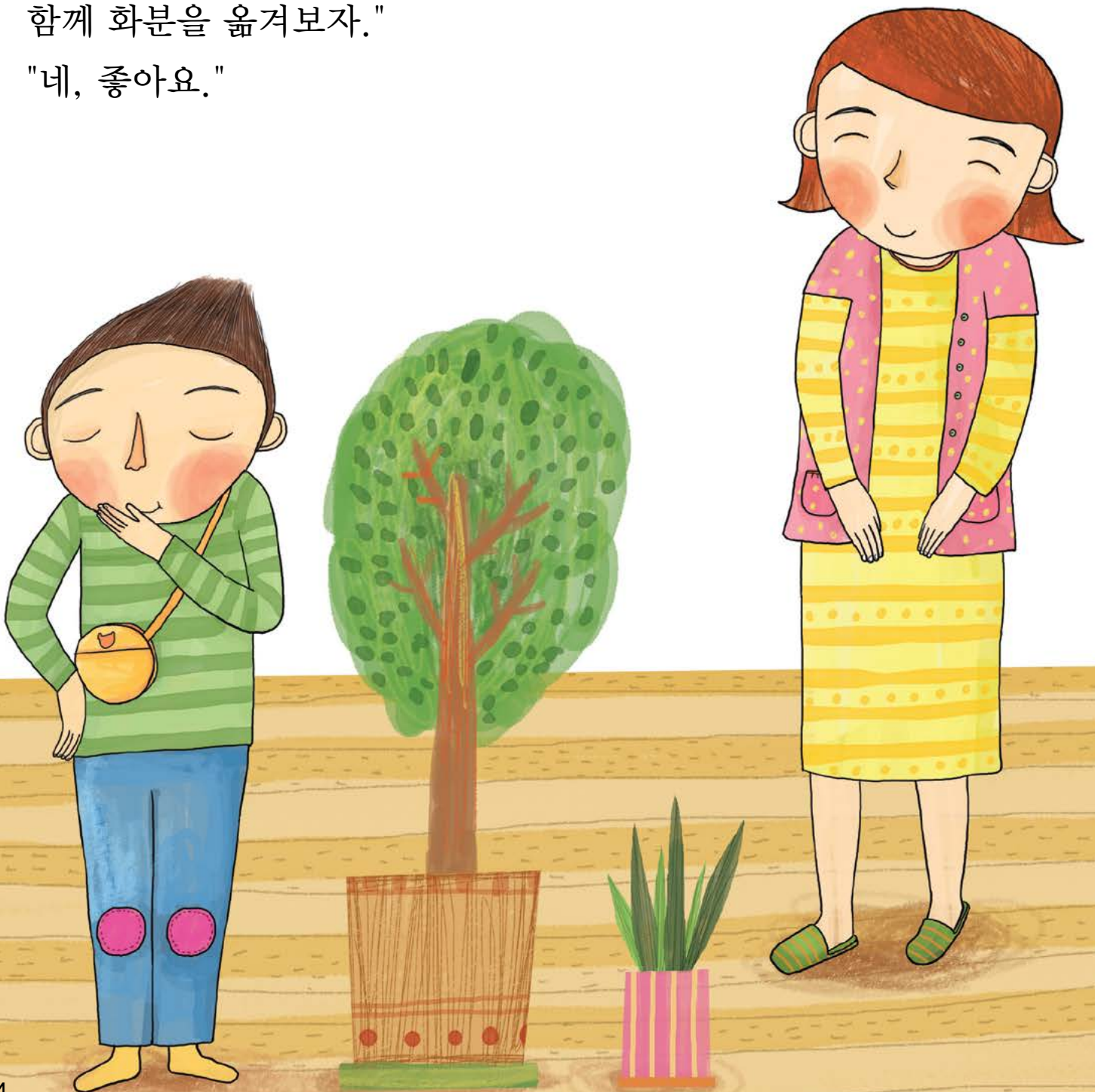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함께 하면 즐거워요

"엄마, 나무를 밖에 놓아두면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남우가 엄마를 도와줄래?
함께 화분을 옮겨보자."

"네,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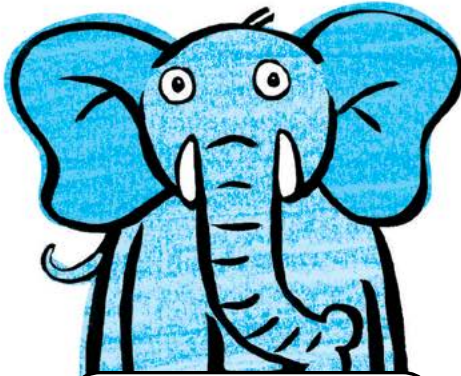


남우는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어요.
"남우가 도와줘서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나의 작은 힘이지만 엄마를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엄마를 기쁘시게
한 남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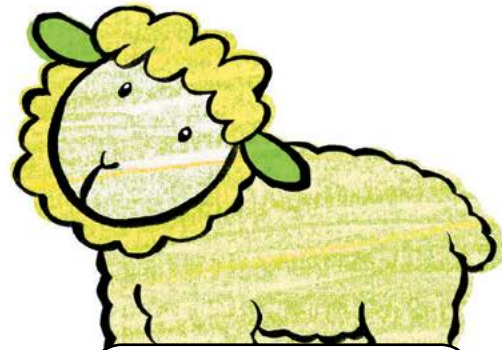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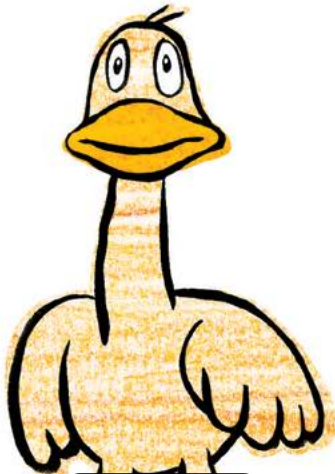
즐거은 활동

아래 그림에서 발을 오려, 맞는 동물끼리 붙여 주세요. 동물의 이름도 써 주세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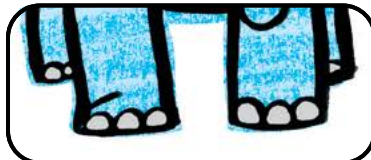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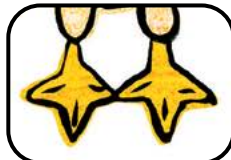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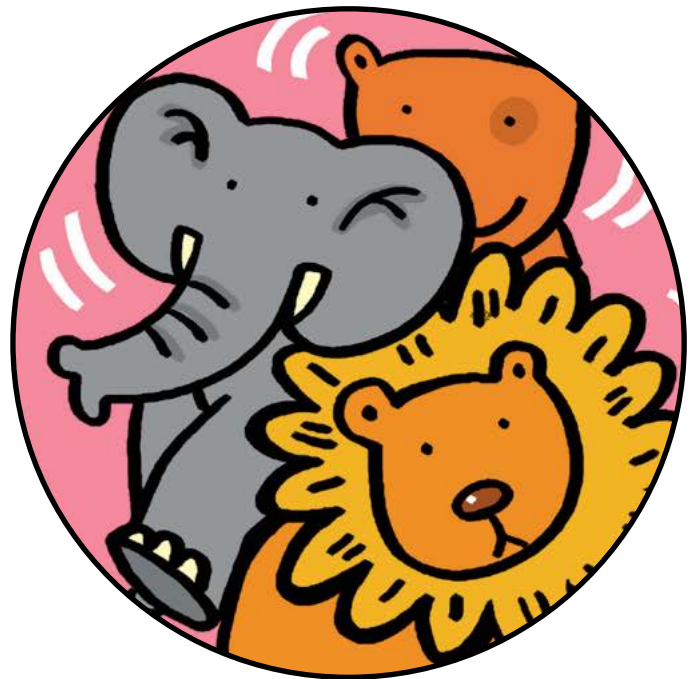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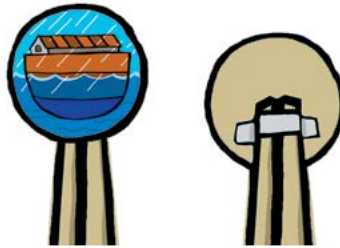
"동물들이 탄 방주 만들기"

재밌는 만들기

준비물 동물그림, 방주그림, 나무 젓가락, 테이프

**만드는
방법**

1. 방주와 동물 그림을 오리세요.
2. 방주 그림을 나무 젓가락의 가는 부분에 붙이세요.
3. 동물 그림을 포개어 붙이세요.
4. 그림이 돌아가도록 나무 젓가락을 양손으로 비벼 보세요.



● 자르는 선 _____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다시 쓰기

선생님께

부모님께